

수급조절위 폐지되나

존·폐 향방에 생약농민 긴장 "기능강화 더 절실" 여론 높아

생산농가보호 차원에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26개 수급조절품목의 전면개방론과 함께 수급조절위 존폐여부가 공론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수입엑스제나 식품원료, 밀수약재등의 무분별한 반입으로 관료에 적잖은 타격을 받아왔던 생산농가 입장에서 수급조절위 존폐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규정'에 따르면 수급조절위 제도는 한약재 생산, 연구 및 품종개발을 유도하고 원활한 공급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유통한약재의 품질향상과 가격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 국내에서 다량 재배 또는 채취되거나 국내 생산량

이 소요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품질이 우수한 것을 수급조절대상 한약재로 지정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수급조절위 운영은 주로 수요자측 입장과 요구에 편중, 수입량을 결정하고 공급하는 등 소극적 역할수행에 그침으로서 국내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효과적인 수급조절 기능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생산단체나 관련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폐지보다는 오히려 제도운영취지에 맞는 수급조절위의 역할설정과 기능강화가 더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수입이 제한돼 있는 26개 수급조절품목 입에도 식품원료나 보따리물건으로 반입 불법유통됨으로서 생산농가에 미치는 타격이 심각한 실

정이며 수급조절위 운영자체를 폐지할 경우 수입약재의 무분별한 반입증가로 한약재 수급조절기능 상실은 물론 국내 생산기반 붕괴를 가져올수 있기 때문이다.

수급조절위의 존폐논란 배경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각 정부부처의 규제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의 한약재 수입규제도 논의대상에 포함시킨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수입제한에 대한 대외적 반발과 국내사정을 고려해 수입제한 조치를 풀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일단 개방이 되고 나면 수입산과 가격경쟁력이 안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재배를 기피하게되고 생산기반 붕괴로 이어지기까지는 불

중국은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불수요가 급증, 농업용수의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져 21세기초에 최대 식량수입국이 될것이라고 미국 월드워치연구소가 최근 밝혔다. 월드워치연구소는 이날 '중국의 수자원 고갈' 보고서에서 중국은 농업생산성 감소에 연간 1억7천 5백만-3억7천만의 곡물을 수입해야하며 이 때문에 세계곡물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연구소는 미중앙정보국(CIA)산하의 국가정보협의회(NIC)가 작년 7월에 분석한 자료를 기초로 보고서를

중국최대식량수입국된다 수자원 고갈 21세기초 연간 1억-3억t 도입 월드워치연구소 전망.

작성했는데 중국의 황하강을 비롯한 주요하천과 저수지 등의 담수량이 지난 10년간에 비해 최근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지하수가 모여 있는 지하식수층도 고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과 중국측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중국 곡물생산의 40%를 차지하는 북부 평야지대의 지하수면이 지난5년간 매년 1.6m씩 낮아졌으며 황하는 작년에 2박26일간이나 바다로 물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등 하천이 말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 1.2년. 더구나 한번 멸종된 품목은 재복구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규제개혁 차원을 넘어 더욱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사항이다.

특히 기후나 토질, 재배지역에 따라 약효의 차이가 현격한 한약재의 국내생산이 중단될 경우 한의계에 미칠 파장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IMF정국속에서 고품질의 국산생약재는 외화획득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 식물이며 생약농업분야는 21세기 가장 전망있는 산업으로 부상되고 있는 추세다.

농진청 작물시험장 성낙술박사는 "수급조절대상 26개 품목은 농진청산하 연구기관에서 재배 및 생산에 대한 연구가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비 절감 기술개발에 주력 향후 1-2년 내에 확고한 국내 생산기반이 구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생약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나면 국내 소요량 전량을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나아가서는 '식량의 무기화'에 버금가는 '약용작물의 무기화'도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는 지적이다. 관련전문가들은 "수급조절위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으로 최소한의 국내 생약생산기반을 보호 확충하고 경쟁력 있는 품목은 정책적으로 육성, 효자산업화하고 약용작물재배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IMF시대 귀농자의 농촌정착사업의 일환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한다. <문정희>

수입자유화 진행될수록 국산약재 생산 감소추세

처음 한약재 도매시장이 개장되었을 때는 상장되는 한약재가 약1백20여 품종이었으나 지금은 약80여품종이 상장되고 있다. 이는 단계적으로 수입자유화가 진행될수록 우리약재 생산이 줄어들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갈근, 복령, 반하, 패모, 현호색 등은 지난 85년 90년도에 다소비품목 20위 내에 속해있던 약재지만 수입자유화로인해 95년도에는 도매시장의 상승순위에서 밀려났음을 알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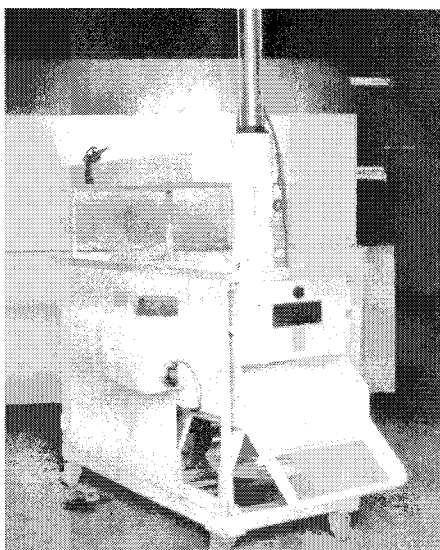
한편 지황, 백출등의 약재들은 지금까지는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해 왔지만 수급조절품목으로 지정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국내자급을 목표로 우량품종육성과 우량품종육성과 순화재배등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상장순위에서 밀려난 비수급조절품목

| 품목 | 국산가격 | 수입가격 | 대비율(%) | 수입해제연도 |
|-----|--------|-------|--------|---------|
| 갈근 | 1,500 | 750 | 50 | 93년이전 |
| 백복령 | 10,000 | 1,800 | 18 | 93년 |
| 반하 | 11,000 | 5,500 | 50 | 95년 |
| 패모 | 5,000 | 2,200 | 44 | 98년 1월 |
| 현호색 | 8,500 | 4,000 | 47 | 94년 11월 |

생약가공 자동화 설비업체

한방업계 최초 Q마크획득



♣ 원반기 자동형

본 기계는 생약 절단기로서 감초, 황기외 가늘고 긴 뿌리 종류의 한약재를 대각선 모양으로 절단하며 당귀, 백출, 복령 등 둥근 모양의 약재 및 열매등은 에어(AIR)실린더가 부착된 투입구에 넣은 후 전자식 스위치를 작동해서 자동으로 압축을 하므로 작업인원 감소 및 생산성 향상과 제품의 균일화를 이룰 수 있어 능률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으로 원가절감에 이바지함. 제약 및 식품회사에 적합.

특징

물이 절단할 때만 자동으로 공급됨으로서 잔류약재가 전혀 없이 절단, 약재부스러기가 전혀 남지 않는다.

| | | | |
|------|-------------------|----|------------------------|
| 설치면적 | 1500×700×2,000 | 중량 | 240kg 생산능력: 천기준 1일 2천근 |
| 전원 | 220V/110V/380V 가능 | 모타 | 2P×1HP×1, 2P×1HP×1 |

♣ 생산품목

- 농,추출기 라인/ · 직각 절단기/ · 원반기 · 자동원반기 · 분쇄기/ · 자동 칼 연마기/ · 숙지황 제조라인
- 숙지황 자동법제기/ · 제한라인/ · 녹용절단기/ · 녹각절단기/ · 녹용 술 주입기/ · 황기, 감초 절단기
- 건재포장기/ · 건재 자동 법제기/ · 세척기/ · 탈피기

태성제약기계

본사:(053)588-8916/7, FAX:(053)356-6070
영주영업사무소:(0572)636-1717, 호남영업사무소:(0657)323-0207

※전화주문을 받습니다.
하자가 있을시는 언제라도 책임지겠습니다.